

KIA '꿈 5연패 고리' 이번주엔 꼭 끊는다



두산·삼성과 홈 6연전... 이종범 500도루·1천득점 대기록 눈앞

한층 강해진 KIA, 두산의 벽을 넘어서라.
 LG 트윈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 싸움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홈 6연전을 치른다. 상대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 베어스와 4위 삼성 라이온즈.
 KIA는 1일 현재 0.520의 승률을 기록하며 3위 순항중이지만 올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하는 등 유독 두산에 힘을 못냈다.
 4월21일과 22일 홈경기에서는 마무리 한기주가 두산의 뒷심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이를 연속 패전투수가 되기도 했다.
 KIA는 양현종-로페즈-윤석민으로 이어지는 철벽 마운드를 내세워 두산과의 실속전을 준비하고 있다.
 첫 경기를 맡게 된 양현종은 지난주 SK와의 경기에서 6과 3분의 1이닝동안 3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자책점은 1점으로 묶어 1.94의 평균자책점으로 부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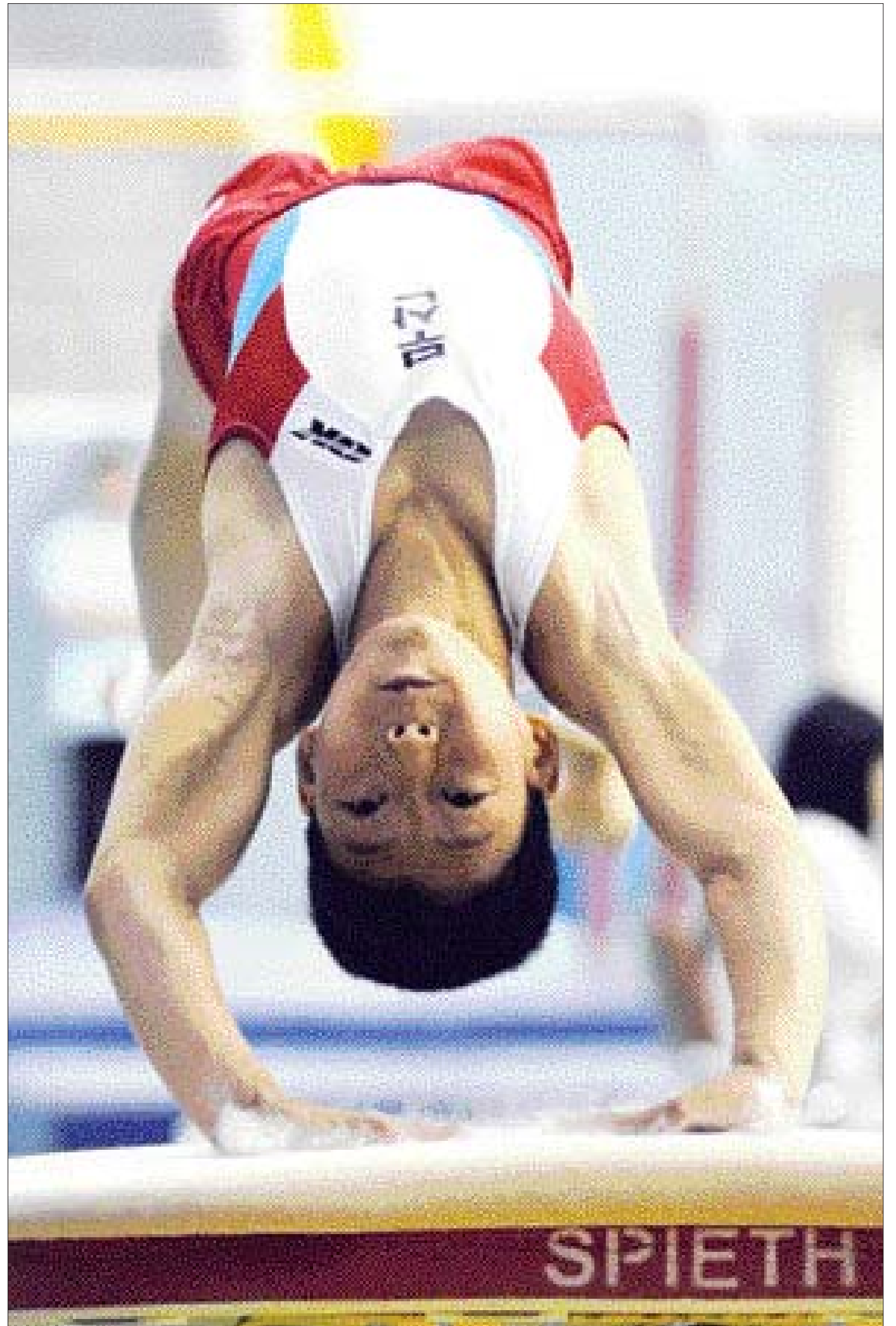
위를 지키고 있다.
 짜임새 있는 공격으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산은 시즌 개막전에서 KIA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김선우를 필두로 정재훈-홍상삼을 대기시키고 있다.
 KIA전에 첫 출격하는 무서운 신인 홍상삼(평균자책점 3.26·3승)은 복병이 될 전망이다. 임태훈, 이재우, 이용찬 등 볼펜진도 든 든하다.
 타선의 상승세는 KIA가 한 발 앞서있다. KIA는 지난달 31일 LG와의 경기에서 9회 이종범의 2타점 적시타로 재역전에 성공하는 등 만만치 않은 뒷심을 과시했다. 서재응·한기주·이범석의 이탈로 마운드가 흔들렸던 5월, 타선의 폭심이 살아나면서 KIA는 16승2무9패로 승승장구하며 3위로 올랐다.
 KIA는 두산과의 승부에 이어 삼성과의 대결을 갖는다. 6인 로테이션이 흔들리며 마운드 운용에 변수가 생긴 KIA 행보의 키는 볼펜이 쥐고 있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1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두산	28	16	2	0.609	3승
2	SK	30	16	4	0.600	1승
3	KIA	26	21	3	0.520	3승
4	삼성	23	26	0	0.469	1패
5	LG	22	25	3	0.440	3패
6	히어로즈	21	26	1	0.438	6승
7	롯데	19	30	0	0.388	4패
8	한화	17	26	3	0.370	4패

한기주의 이탈과 윤석민의 선발 전환속에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KIA의 6월 첫주의 표정은 0.83의 평균자책점으로 볼펜을 수호하고 있는 유동훈을 중심으로 한 볼펜진의 힘 대결에서 갈릴 전망이다.
 한편 '야구 천재' 이종범은 500도루(1일 현재 499개)와 최소경기 1천 득점(997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산선발 박영제가 1일 영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년체전 남자초등부 체조경기에서 힘찬 도마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열기 뜨거운 광주가 그림다”

경찰청야구단, 신용운·차정민·최훈락 선수

1군 복귀 꿈꾸며 담금질... KIA 2군과 경기



왼쪽부터 최훈락·차정민·신용운 선수.

신용운·차정민·최훈락 등 경찰청에서 군복무중인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모처럼 친정 나들이에 나섰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경찰청 야구단과 KIA의 2군 경기가 열리면서 세 선수가 홈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에는 2군 경기가 활형 구장에서 열렸기 때문에 광주를 찾을 기회가 없었던 만큼 이들에게 이번 방문은 특별했다.
 투수 신용운은 “입대 후 첫 방문인데, 경기장 외야 펜스에 아직 내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가슴 뭉클했다”며 “광주가 정말 그리웠다”고 친정 방문 소감을 밝혔다.
 신용운은 외야수 최훈락과 함께 12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투수 차정민은 이보다 앞서 11월 경찰청 유니폼을 벗는다.
 올 시즌이 끝나고 당장 친정에 복귀해야 하는 신용운은 부쩍 성장한 후배들을 보면서 마음이 급하다. 같은 언더 투수인 차정민과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2년 입단 후 33승21패22제이브를 기록했던 신용운은 “군대 생활에 힘든 점도 있지만 내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며 “빠른 슬라이더를 장착하는 등 야구 실력도 키워왔다”고 밝혔다.
 조범현 감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를 선택했던 신용운은 WBC 등 국제 대회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경찰청이라는 새로

운 무대에서 인내와 완공 조절 능력을 배웠다.
 신용운은 2005년 수술을 받았던 팔꿈치 부분의 뼈가 못자라 오는 8월 다시 수술을 생각하고 있다. 큰 수술이 아닌 만큼 3개월 정도 재활을 한 뒤 KIA로 복귀할 계획이다.
 차정민과 최훈락도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1군에 진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변화구 가다듬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차정민은 써클 체인지업을 새로 연마했고, 팀에서도 구위가 가장 좋다는 평가다.
 외야수 최훈락은 셋 중 가장 근대 체질.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어 군대 생활이 힘든 줄 몰랐다는 최훈락은 하체 밸런스 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고 있다. KIA 경기 중계를 보는 게 일상이 된 세 선수의 마음은 벌써 무등경기장 그라운드를 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예상밖 부진



양궁·태권도 등 주력 종목서 메달 차질
 전남체육중 김영은 여자 역도 2관왕

광주와 전남이 ‘금메달 사냥’에 대거 실패하면서 제38회 전국소년체전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대회 3일째인 1일 양궁·태권도·수영·역도 등에서 예상 밖 부진으로 금메달 6개를 추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금 22개, 은 21개, 동 17개를 목표로 했던 광주는 이날까지 총금 12개, 은 3개, 동 27개를 획득, 메달 목표치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이날 축구·정구·양궁·역도 등 구기·기록종목에서 예상했던 금메달을 놓쳐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남은 역도 김영은(전남체육중)의 2관왕과 여중 불링 4인조 우승으로 금 3개를 더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당초 금 30, 은 24, 동 39개를 목표로 했던 전남은 폐막을 하루 앞두고 금 24, 은 17, 동 41개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이날 체조경기(영광실내체육관)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구범(광주체육중)·김도영(광주체육중)이 남녀 중

학부 철봉과 도마에서 각각 우승했으며, 여초부 조원희(양산초)도 뿔뿔에서 금빛연기를 펼쳤다.
 이밖에도 김현민(광주체육중)이 양궁 남중 30m, 봉산중 소프트볼팀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도 “소년체전 신종플루를 막아라” 예방 총력

지난 30일부터 여수시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는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남도는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건강체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신종플루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번 대회에 참가한 1만7천여명의 선수단에 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장별로 보건 요원을 상주시키고 비상근무체계 구축, 예방물품 비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시도선수단

관련 사격에서 정다은(광주동아여중)이 공기권총 10m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팀장단 이후 소년체전서 첫 메달을 기록했다.
 전남은 역도경기(보성실내체육관)에서 김영은이 여중부 63kg급 인상(70kg)·합계(157kg)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나 용상에서 87kg으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불링경기(목포국제불링장)에선 전남선발(이다정·이수자·이미소·이영승)이 4인조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F1&월드슈퍼카 쇼 인기

DJ센터서 가티 베아론 등 25대 전시



2009 광주F1&월드슈퍼카 쇼가 오는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009 광주 F1&월드슈퍼카 쇼가 오는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슈퍼카는 레이싱 경기에 출전하는 레이싱카 이상의 성능을 갖춘 채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차를 이르는 말로, 보통 일반 스포츠카와 슈퍼카의 경계선은 최고 출력 400마력 이상, 최고 시속 300km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번이 전시되는 세계 최고 월드 슈퍼카는 부가티 베아론, 엔초 페라리, 페라리 F430, 페라리 360, 포르세 카레라 GT, 코니세그 CCR, 톨스로이스 팬텀, 라모르키니 등 모두 25대며 F1 머신카와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등장했던 ‘로터스’도 전시돼 있다.
 또 2010 코리아그랑프리 홍보관을 운영중이며 국내외 상용차 전시관, 세계 자동차 역사관, 튜닝카 및 카오디오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존 모터쇼와 달리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카트 썰기 체험장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황미희·구지성·남은주 등 국내 최정상급 레이싱 모델 30여명이 설명을 진행한다.
 티켓가격 일반 및 대학생 1만원, 중고생 7천원, 초등학생 5천원. http://gjsupercarshow.com. 문의 1600-80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